

# 중학생 위한 '진로탐색공간' 만든다

### 광주시교육청, 기초·기본 역량 강화 봉선·두암중에 '365-커리어룸' 조성 자기주도 진로학습체계 전문가 지원

중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역량을 키울 수 있는 '365-커리어룸'이 일선학교에 조성된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모를 통해 봉선중학교, 두암중학교 등 2개 학교에 각 7000만 원을 지원해 3월부터 학교 유휴공간을 '365-커리어룸'으로 조성한다.

'365-커리어룸'은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해 호평을 받은 '365-스터디룸'의 시리즈 개념이다. 다만 대상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경되고, 365-스터디룸이 진학과 공부를 목적으로 마련한 반면 365-커리어룸은 중학생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커리어룸은 학교급이 달라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적응을 돕고, 학습코칭, 진로자료 및 정보 공유, 동아리 활동 공유, 학습결과물 전시, 포레멘토링 등 개방형 진로탐색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학생들이 진로학습설계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교사 및 지역사회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365-커리어룸' 등 '2025학년도 광주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진로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진로교육 현장지원단이 '찾아가는 진로특강', '진로-학습설계지도', '내 꿈 찾기 진로상담실' 등을 진행한다.

다문화 학생·학부모를 위해 이중언어강사를 매칭해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광주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13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담당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진로교육은 지난해 초등학교 1, 2학년부에서 시작된 2022 개정교육과정 순차적 도입에 따른 변

화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설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특히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진로 체험 생태계 조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학생들이 기초·기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 진로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꿈이 미래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교육청-타슈켄트한국교육원 업무협약 고려인 후손 義교육 및 교육 지원 협력 강화



전남도교육청과 타슈켄트한국교육원 관계자들이 17일 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과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이 고려인 후손의(義) 교육 및 교육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열린 협약은 전남도교육청의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및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남도교육청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 ▲전남-우즈베키스탄 교육 교류 지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활동 ▲교육자료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이후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됐다.

도 교육청은 사업을 통해 고려인 후손 학생의 한국어교육·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고려인의 승고한 정신을 기리는 고려인 후손 의교육과 관련한 전남독서인문학교 운영 등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과의 교육 교류를 진행한다.

또 고려인 후손 및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전남에 와서 직업교육, 한국어교육, K문화교육 등 3년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협력을 돈독히 하여 전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벌 전남교육을 위해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기자 bigkim@

# 광주여대 교직원과정센터 교원양성학과 전략과제 발표회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교직원과정센터는 최근 2024학년도 교원양성학과 발전계획 전략과제 강점 분야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과 발표회는 교원양성기관(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한 강점 분야의 발전(우수) 사례 발굴을 통하여 확산하고, 사회 변화와 미래 교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환류·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평가대상 학과인 교원양성과정별 교육과(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일반대학 교직원과정 학과(미용과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공모한 결과 2024학년도 우수사례 선정학과는 교육과 1개 학과(초등특수교육과)와 일반대학 교직원과정 학과 1개 학과(미용과학과)가 교원양성학과 자체평가연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광주여대 교직원과정센터 한민석 센터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회 결과를 분석하고, 생활과 환류를 통해, 예비 교사의 미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재하여 실시한 2020년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광주여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성과정별(교육과, 교직원과정, 교육대학원 양성기능) 모두 최우수 등급(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신대, 에너지밸리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



나주시 등과 나주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환경, 유망 기업 우수 기술 홍보 적극 지원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나주시, 목포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2025 에너지밸리 수도권 투자 유치 로드쇼를 개최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 행사는 나주 에너지밸리의 투자 유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도권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 로드쇼 참가기업인 은성트래시(주), 아이오티플라스티크(주)는 동신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과 동신대학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단(RIS사업단)의 에너지 융복합 시스템 기업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들 기업은 동신대와 함께 탄소중립 에너지 자

립 대신마을에 제품을 설치, 에너지 프로슈머 리빙랩을 구축하는 데 일조해왔다.

이번 에너지밸리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에서는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협약 체결과 함께 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밸리 투자 환경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 에너지밸리 기업과 개발도상국 IEPP 참여자를 연결하는 공적 개발 원조(ODA) 발발 설명회, 에너지 우수 기술 이전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에너지밸리 내 10개 기업이 IR 피칭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기술력과 비전을 직접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사업단 이동환 단장은 "앞으로도 동신대학교가 구심점이 되어 관련 분야 기술 개발과 함께 오픈랩과 창업 지원, 유망 기업 발굴·협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발전에 기여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조선대-순창군, 체계적 치매 예방·관리 업무협약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군수 최영일)과 지역사회 치매 예방 공동협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조선대에 따르면 최근 청출어루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선대 김춘성 총장, 이진호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장과 순창군 최영일 군수, 한표 행정복지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순창군이 치매극복기술개발과 지역사회 치매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는 치매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및 치매고위험군 정밀검사 연계 ▲치매 조기예측 및 예방관

리를 위한 지역기반 의료 시범서비스 사업 운영 협조 및 연계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및 시범서비스 실시 마련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민의 치매 예방과 노인성 뇌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치료 신의료기술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순창군과의 협약을 통해 첨단 치매 예측 기술을 활용해 정밀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조선대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을 위한 첨단 치매 진단 기술을 도입하고,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주민의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